

100살 한옥서 즐기는 커피 한잔과 문화



④ 비아동 북카페 '도란도란'

주민들 10여명 까망이 협동조합 결성
 바리스타 교육 받고 엄마들이 운영
 조합원들 직접 가구 제작·인테리어
 어르신 함께하는 문화행사 등 도모



북카페 책장과 소품들은 까망이 협동조합원들이 직접 만들었고, 판매도 한다.

광주시 광산구 비아동 한옥을 리모델링해 문을 연 까망이 북카페 '도란도란'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따뜻한 느낌의 한옥 외관이 인상적이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은은히 번져 나오는 불빛도 정겹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까래가 그대로 보이는 한옥 천정이 눈길을 끈다. 높은 천정에 물결처럼 내걸린 천에 정현종의 시 '방문객'의 한 구절이 적혀 있다. '사람이 온다는 건/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커피숍 한쪽에서 바느질하는 엄마들이 눈에 띈다. 조금 있으니 초등학생 손님이 몰려와 수다를 떠다. 이런 저런 모임들도 이어진다. 지난해말 문을 연 까망이 북카페 '도란도란' 풍경이다.

'도란도란'은 광주시 광산구 비아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다. 올해 나이 100살로 추정되는 한옥에 등지를 틀었다. 이 한옥은 광주시 북구 삼소동 빈산마을 강운삼 씨 소유였고, 현재의 위치로 옮겨 온 게 1935년이다.

한옥은 1935년부터 50년간 비아면사무소로, 지난 2014년 7월까지 30년간은 비아에비군 중대본부로 이용되던 곳이었다. 이후 2014년 광주시 창조마을 사업 일환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했고, 비아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논의를 거쳐 북카페로 변신했다.

'도란도란'의 출발은 지난 2013년 동네 아파트 단지에 문을 연 비아 까망이작은도서관에서 시작된다. 마을에 들어선 작은 도서관은 인근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책을 읽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 엄마들은 함께 모여 인형도 만들고, 목공예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북카페 운영을 위해 비아동 엄마들을 중심으로 10명이 까망이 협동조합을 꾸렸다. 체계적인 바리스타 교육도 받고 5명이 돌아가며 가게를 맡고 있다.

카페 구석 구석, 조합원들이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DIY 목재를 구입 후 직접 조립하고 색칠해 세상에 하나뿐인 탁자와 의자를 만들었다. 도서관 활동 당시 진행했던 '까망이 목공'이 큰 도움이 됐다. 군데 군데 놓여 있는 귀여운 분재 인형 역시 엄마들의 솜씨다. 한지 공예, 양초 공예, 캘리그래피 등 카페 곳곳에 놓여 있는 소품들은

은근사한 인테리어가 됐다. 카페에 꽂혀 있는 책은 조합원들이 기증하고, 일부는 까망이 도서관에서 가져왔다.

아직 문을 연 지 한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지금은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다. 까망이 도서관 시절,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어 조만간 작은 음악회와 인문학 강의 등도 꾸려볼 예정이다. 지역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토착 노인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준비중이다.

"이 공간은 마을 공동체이고 우리들의 일자리이기도 합니다. 소박한 문화 프로그램과 함께 아직은 카페라는 공간이 낯선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생각중이에요. 어르신들이 평생 온몸으로 익혀온 삶의 지혜를 나누고 그 분들과 엄마들과의 소통 방안 등도 모색하고 있어요."

까망이 협동조합 이해경씨의 말이다. 카페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만든 공예품을 판매할 공간도 작게 준비해 두었다. 비아 5일 시장 안에 주민참여 플랫폼 형식으로 마련된 '맹글라우'의 목공 제품과 엄마들이 만든 부엉이 파우치와 열쇠고리 등 소박한 소품들을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조합원 중 재주가 뛰어난 회원이 있어 재능 기부 형식으로 소규모 강좌도 진행해볼 생각이 있다. 그밖에 비아에서 생산되는 로컬 푸드도 판매할 예정이다. 도서관 뒷편으로는 나무 데크를 깔았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음악회 등 소박한 문화 행사를 여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서관 활동을 할 때는 수익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카페 운영을 위해 수익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힘들기는 하죠. 한데, 전혀 몰랐으니 저지랄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웃음) 소박한 문화가 꽃피고, 좋은 걸 함께 나누는 공간으로 키워가고 싶습니다."

평일은 오전 9시~오후 8시,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문을 연다. 비아 장날(1·6일)에는 커피를 2000원에 할인 판매한다.

수익금의 일부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활용된다. 문의 062-956-541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일보 문화예술 전문 매거진

예향 2월호



대한민국은 지금, 복고 열풍

예술교육 시리즈 첫번째 '여수 예술마루'

요즘 복고(復古) 열풍이 거세다. 1980년~1990년대의 대중가요와 패션, 상품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4050세대는 물론 1020세대의 호응을 얻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은 복고 트렌드를 촉발시켰다.

광주일보 문화예술전문 매거진 '예향' 2월호(244호)에서는 특집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복고 열풍'을 마련했다. 왜 한국사회가 복고문화에 열광하는지 분석하고, 과거 원곡을 리메이크해 새로운 느낌으로 불리는 '청춘', '소녀' 등 가요에 대해 살펴봤다. 소설과 시를 필사하며 고단한 삶에 힐링을 찾는 이들과, 여전히 LP를 즐겨 듣고 애호가들과 공유하는 DJ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설기획 '홈쇼핑'은 20여 년의 역사를 품은 홈쇼핑 세계를 들여다봤다. 제주도에서 직접 농사지은 감귤과 7집 앨범을 홈쇼핑에서 9분 만에 '완판'한 가수 루시드폴의 사례는 홈쇼핑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했다. 설 명절에 앞서 온갖 제주용품 홈쇼핑을 통해 구매하는 것도 이전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았다. 국내 1호 쇼호스트 유난희씨 인터뷰는 홈쇼핑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예향 초대석'에서는 97세 노장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만나 '백세인생' 건강 비결과 삶의 철학에 대해 들어보았다. 김 교수는 매일 40매의 원고를 쓰고 매주 2~3회 강연을 하는 등 왕성한 지적활동을 펼치고 있다.

새해 연재물로 '이제는 문화시민-소문난 예술교육 현장을 찾아서'를 신선했다.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등 최근 지역의 문화인프라와 콘텐츠가 풍성해지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문화마인드도 높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된 시리즈다. 이번 시리즈의 첫번째 현장은 여수 예술마루가 주선한 행복한 예술 멘토링이다.

'추모 기획'으로 지난 15일 타계한 고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의 생애와 철학에 대해 조명했다. 이 밖에도 새해 광주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소설·시·동화 부문 당선자 3인과 제10회 광일 문학상을 수상한 안영옥 동화작가가 자신들의 문학이야기를 들려준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조선대 중앙도서관 故 신영복교수 저서 특별전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지난 1월15일 별세한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의 저서를 4층 문학자료실 유리서가에서 특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우리 시대의 스승'으로 존경받은 고(故) 신교수를 기리기 위해 마련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담론 :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 '다불어쑤', '처음처럼' 등 지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신교수가 쓴 저서 22권을 선보인다.

신 교수는 지난 2012년 조선대를 방문해 '공부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당시 신교수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발로 이어지는 자기변화가 진정한 공부"라고 학생들에게 조언했다. 문의 062-230-609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박성천 소설가

함정임 소설가·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삶의 불모성에 천착한 따뜻한 언어의 미학

부족함이 강하다

박성천 지 | 224쪽 | 컬러 | 값 12,000원

박성천 작가의 소설은 삶의 이면이 어둡고 깊게 드리워진, 아픔과 슬픔을 예리하게 들여다본다. 현실에 갇힌 등장인물들의 삶은 결코 선블리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하고도 무참하다. 일견 평화로워 보이는 일상 너머에 무겁게 자리한 삶은 고해(苦海)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삶의 고통을 극복해나가는 인물들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따뜻하면서도 냉엄하다. 작가는 조금의 과장이나 애드립 없이 날것 그대로를 응시한다. 박성천은 자신만의 소설작법을 독심 있게 밀고나가면서, 독창적이고도 완성도 높은 형상화라는 그만의 미학을 성취해나가는 데서 빛이 난다.

박성천 소설의 미덕은 삶의 비무함과 냉혹함을 감싸 안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과 인간적인 태도에 있다. 인물들의 처지는 하나같이 외롭고 궁핍하고 궁지에 몰려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주목하고 서사적으로 이끌어간 작가의 특성이 은근하고 순정적이다. 부한 경쟁 체제 속에 나오된 무력한 도시민의 지리한 현실을 예리하면서도 온기 가득한 삶의 언어로 빚어내고 있어 희귀한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